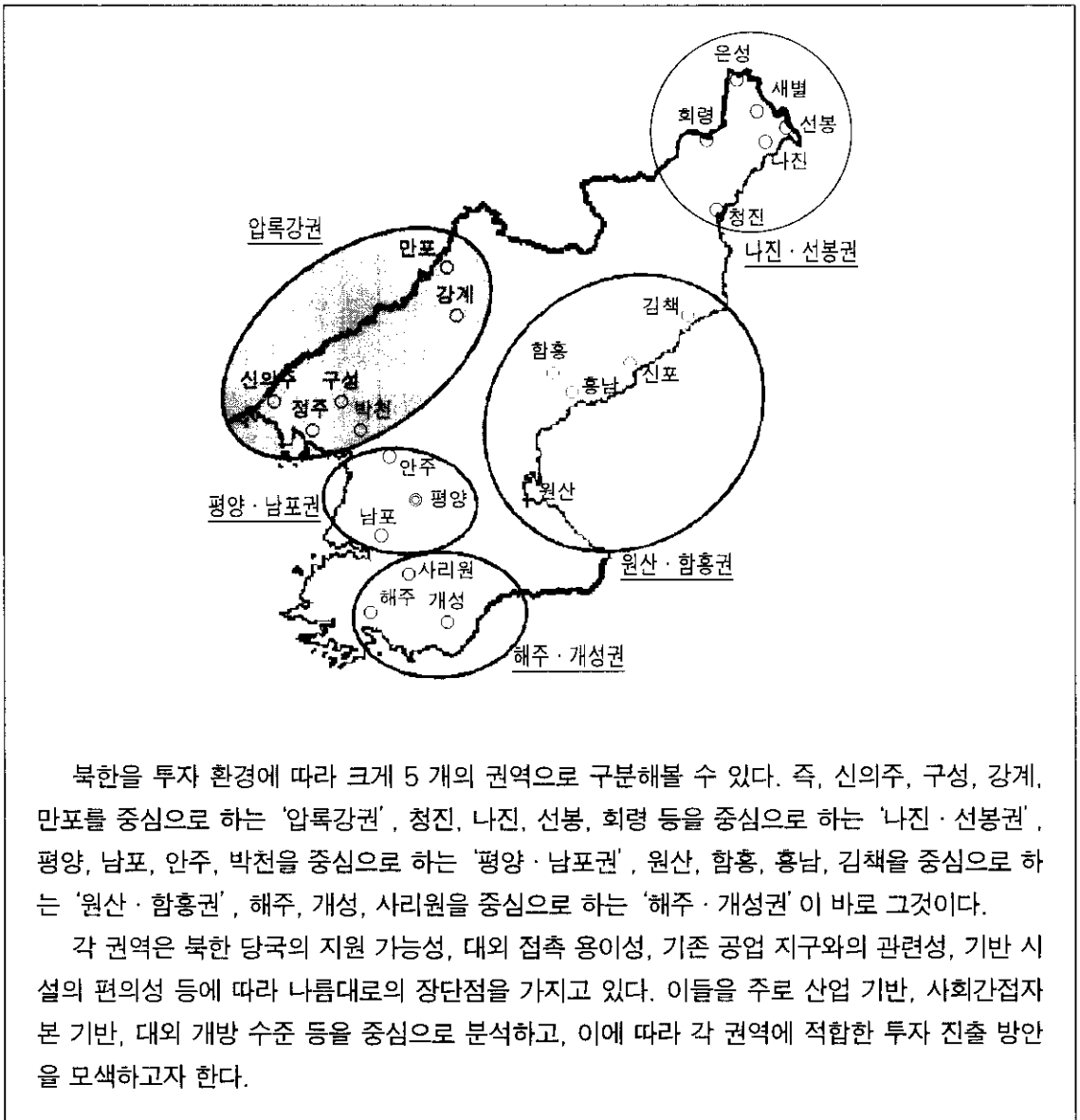


권역별 투자 환경(Ⅳ) - '압록강권'

홍순직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을 투자 환경에 따라 크게 5 개의 권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신의주, 구성, 강계, 만포를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권', 청진, 나진, 선봉, 회령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나진·선봉권', 평양, 남포, 안주, 박천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남포권', 원산, 함흥, 흥남, 김책을 중심으로 하는 '원산·함흥권', 해주, 개성, 사리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주·개성권' 이 바로 그것이다.

각 권역은 북한 당국의 지원 가능성, 대외 접촉 용이성, 기존 공업 지구와의 관련성, 기반 시설의 편의성 등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주로 산업 기반, 사회간접자본 기반, 대외 개방 수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적합한 투자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산업

압록강권은 북쪽으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부의 요녕성과 길림성과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 동남쪽으로는 양강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북부와 인접해 있어 대륙과 바다, 내륙의 3면을 접하고 있다. 중국과의 인접 지역은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중국과의 변경 무역은 물론 남한의 서해안 공업 지대와 연계한 동북아 전진 기지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 권역내 포함되어 있는 신의주 및 강계공업지구에 속한 주요 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경제 기반과 SOC 현황, 정치·제도적 측면의 투자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 개황

압록강권은 북한내 최대의 공작기계 공장인 희천공작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해 신의주 공업지구와 강계공업지구, 그리고 안주공업지구의 일부가 속해 있어 기계 제작 공업이 발달해 있다. 또한 압록강과 독로강을 이용한 수력 발전소와 신의주, 용암포 등지의 주요 수산 기지가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면적의 70~80%가 산지로 되어 있어 북한내 주요 임수 산업 기지로 유명하다. 특히, 평안북도는 산지의 80% 이상이 500 m 이하의 낮은 구릉지일 뿐 아니라,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경제 활동에 널리 사용되는 200 m 미만의 평지 수준이다.

이 지역내 대표 도시로는 신의주공업지구 내의 신의주시와 구성시, 강계공업지구 내의 강계시와 만포시, 희천시 그리고 안주공업지구 내의 피현군과 박천군 등을 들 수 있다.

신의주시는 압록강 하류 연안의 중국으로 철도가 연결되는 국경 관문 도시로, 서부와 북부 지역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부 지방의 단둥시와 인접해 있다. 주요 산업으로는 기계 공업, 화학 섬유 공업, 방직 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해안의 주요 수산 기지 및 원양 어업 기지로도 유명하다. 주요 특산물로는 각종 법랑 철기와 멸치 등이 있다.

구성시는 북부와 북서부 지역이 높은 산지로 되어 있고 시 안의 대부분 지역은 언덕 산지와 분지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 주요 군사 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며, 기계 제작 공업과 방직 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풍발전소가 있는 삭주군은 북한 지역 내의 주요 전력 생산지인 동시에 카바이드를 비롯한 기초 화학 제품과 비료 등 화학 공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강계시는 해방 전에는 오늘의 만포시, 강계시, 시중군, 장강군, 전천군, 동림군 지역이 포함된 강계군이었으나, 1949년 12월에 강계군 강계면이 시로 승격되면서 창설된 도시이다. 시의 변두리는 낭림산맥과 강남산맥에서 갈라진 산맥들이 뻗어 있으며, 화강암과 석회암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기계 제작 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계청년수

력발전소의 전력 공업과 풍부한 산과일과 목재 자원을 원료로 한 식품 공업과 목재 일용 공업도 발달해 있다.

만포시는 압록강과 독로강 연안의 비교적 넓은 충적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전력 공업과 기계 공업, 건재 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강도 내에서 논이 가장 많아 알곡 생산지이기도 하다.

회천시는 자강도 남서부의 청천강 상류 유역에 있는 하나의 큰 분지형 도시로, 시의 북부와 남동부 지역에는 각각 적유령산맥과 묘향산맥이 뻗어져 있다. 이 도시는 공작기계 공업과 전력 공업, 임업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청상 약수와 명대 약수 등 유명한 약수들이 다수 있다.

이외에도 안주공업단지 내의 피현군은 벽돌과 타일 등의 건재 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명주 산지로 잘 알려진 박천군의 박천견직공장에서는 고급 비단천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산업 현황

압록강권내 신의주공업지구는 수풍발전소와 태천발전소를 끼고 있어 양호한 공업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 유일의 디젤 엔진 공장인 북중기계공장을 비롯하여 기계 공업과 섬유, 제지, 방직, 식료 및 건자재 공업이 발달해 있다. 강계공업지구도 북한내 대표적인 내륙 군수 공업 도시로 기계 공업뿐 아니라, 산림 자원을 이용한 목재 가공 공업이 발달해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부족한 생활 용품 조달을 위해 군수품 생산 후 남은 자재를 활용하여 밥솥과 수저, 책걸상 등의 생활 용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군수 공장 내의 '생활 필수품 직장'을 많이 설치하였는데, 이 권역 내의 강계시와 만포시에는 이러한 생필품 직장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다.

기계 공업

기계 공장으로는 신의주공업지구 내의 구

〈표 1〉 압록강권의 지역 개황

중심 도시	· 평안북도(신의주, 구성, 박천, 삭주, 정주), 자강도(강계, 만포, 회천, 전천)
특화 산업	· 기계, 화학, 전력, 방직, 제지, 채굴, 금속, 건재, 임수산업
입지 조건	· 자원 : 구장군의 무연탄, 의주의 철광석, 운산·동창의 금, 은 등
	· 전력 : 수력발전소(수풍, 태천, 천마, 태평만, 운봉, 강계청년, 독로강)
	· 공업 용수 : 압록강, 수풍호, 독로강
	· 철도 : 평의선(평양~신의주), 평북선(정주~청수), 만포선(순천~만포), 중국·러시아와의 연결 철도(평양~신의주~단동~북경·모스크바) 등
· 교통·항만	· 도로 : 북부 동서 횡단 도로(신의주~온성), 간선 도로(신의주~고무산, 개성~신의주, 안주~만포, 정주~삭주) · 항만 : 수산 기지 수준의 어항(신의주, 용암포)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1996. 6), 「북한의 산업」, 무공 자료 95-23; 한국산업은행(1995. 11), 「북한의 산업」.

성공작기계공장과 8월28일공장을 비롯하여, 강계공업지구에는 희천공작기계연합기업소와 희천정밀기계공장, 강계정밀기계공장 등이 있다. 1995년 현재, 압록강권내 희천 및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생산 능력은 각각 1만 대로 북한 전체 능력 3.5만 대의 약 60% 수준을 차지할 만큼, 이 권역은 북한내 주요 기계 공업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북한이 기계 설비의 자동화 및 반자동화를 위해 6개년계획 기간중(1971~76)에 희천 지역을 북한 최대의 정밀 기계 공업 단지로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80년대 후반에 비로소 그 결과가 현실화된 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희천공작기계연합소는 북한 최대의 공작기계 공장으로서, 6·25전쟁 중에 체코의 원조로 건설되어 1954년 말에 초급 공작기계를 모방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시설 확장 및 설비 보완으로 1972년에는 연간 1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 공장 산하의 유압분공장에서 생산된 일반 유압 부품은 전국 각 공작기계 공장에 공급되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생산 기종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에 주력하여 1987년에는 NC 공작기계를 생산하였으며, 지금은 Machining Center 중심의 자동화 공작기계 생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산 능력은 대부분의 설비가 노후화된 데다가 도입된 장비에 대한 부품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70년대의 1만 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성공작기계공장(4월3일공장)은 1955년 헝가리의 기술 원조로 착공되어 1959년에 준공된 북한 제2의 공작기계 공장으로 종합 자동 선반, 밀링기, 유압 모방 선반 등 대형 공작기계 부분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60~70년대의 대량 생산 및 생산 기종의 다양화 시기를 거쳐, 1988년에는 NC 공작기계 생산에 성공하였다. 구성104공장에서는 NC 선반을 제조하고 있는데, 五面종합공작기계는 완전 자동화된 설비로 공작기계 제작에 상당한 정밀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역내 건설 및 광산 기계 공장은 전천착암기공장을 제외하고는, 구성시와 신의주시의 광산기계공장을 비롯하여 북중기계공장 등 신의주공업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구성광산기계공장은 1956년 헝가리의 원조로 북한내 가장 빨리 조업을 개시하였다. 북중기계공장은 북한 유일의 디젤 엔진 공장으로 선박용 엔진 제작처로 명성이 높으며, 불도저와 천정기, 중기 등을 생산하는 종합 기계 공장이다. 한편, 북한의 건설 및 광산 기계의 생산 능력은 가공 공업보다 채취 공업을 우선시하고 자연 개조 사업을 위한 건설 장비 수요가 증대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 광산 기계 공장으로, 고성능 광산 장비와 특수 장비 등은 구소련이나 일본, 독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역내 정밀 기계 공장은 북한 최대의 정밀 기계 공장인 희천정밀기계공장(2월26일공장)

〈표 2〉 압록강권의 주요 기계 공장 현황

공장명		소재	생산 품목	비고
공작 기계	회천공작기계연합기업소	회천	범용 선반(회천3호), 유압 모방 선반, 수직 선반, 연삭기, 미싱, NC 후라이스반, 차륜 모사 가공반, 대형 볼반, 곡축초원성 가공반, 유연생산체계, 수평·수직 종합 가공반, NC 가공반	· 특급 기업소 · 종업원 8,000 명 · 연생산 능력 1만 대 · 체코 원조로 1954년 12월 조업 개시
	구성공작기계공장 (4월3일공장)	구성	범용 선반(구성3호), 자동 선반(구성1호), NC 선반(구성104호), NC 후라이스반, 대형 볼반, 차륜 모사 가공반, 곡축초원성 가공반, 프레스·용접 소재 공급 로봇, 18 m 타닝반, 16 m 선반, 15,000 m3 압축기, 1만 톤 프레스	· 특급 기업소 · 종업원 5,000 명 · 연생산 능력 1만 대 · 헝가리 원조로 1995년 착공, 1959년말 조업 개시
건설 및 광산 기계	구성광산기계공장 (8월28일공장)	구성	착암대차, 굴착기, 착암기, 공기 적재기, 권양기	· 헝가리 원조로 1956년 6월 조업 개시
	신의주광산기계	신의주	고속 굴진기, 착암기	· 1981년 고속 굴진기 직장 가동
	전천착암기	전천	착암기	· 압연 소재 생산 공정 가동
	북중기계공장	웅천	불도저, 천정기, 중기, 디젤 엔진, 선박용 기관, 75 마력급의 붉은별 58형	· 종합 기계 공장
정밀 기계	회천정밀기계공장	회천	자동 주유기, 계기, 자동식 기구	· 1급 기업소
	강계정밀기계공장	강계	탁상 시계, 각종 계기 시건 기구	· 2급 기업소
	신의주영예군인시계공장	신의주	탁상 시계, 패종 시계	· 3급 기업소
농기계	정주트랙터부속품공장	정주	트랙터 전진호	· 3급 기업소
	곽산연결농기계공장	곽산	벼수확기	· 4급 기업소

자료: 북한연구소(1994), 「북한 총람」; 한국산업은행(1995, 11), 「북한의 산업」, pp. 79~83, p. 444.

을 비롯하여 강계정밀기계공장과 청진 및 신의주영예군인시계공장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공장들은 패종 및 탁상 시계 등의 기본적인 정밀 기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특수 정밀 기계 제품은 거의 전량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 공업

압록강권내 철강 및 비철 금속 공장은 다른

권역에 비해 규모나 공장 수가 적은 편인데, 이는 이 지역내 광산에서 생산되는 지하 자원 자체가 타 권역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의주제철공장은 5만 톤의 선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평북제련소는 북한이 80년대 이후 1993년까지 비철 금속 170만 톤의 생산 목표로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하던 기간 중에 세워졌다. 1991년에 준공되어 유색 금속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생산량은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철강 및 비철 금속 공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므로 북한의 심각한 외화난과

에너지난으로 공장 가동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역에는 북한내 주요 금광이 있는데, 평북의 운산광산과 대유동광산이 유명하다. 운산광산은 1945년까지의 금 생산량이 100만 톤에 달했던 한반도 최대의 금광이었으나, 이후 방치되어 갱도가 수몰 상태에 있었다. 1986년 9월에 북한은 조총련 상공인 30 명에 의한 자본금 1.2억 엔의 '운산금광개발'社와 합영 방식으로 이 광산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¹⁾ 운산금강개발은 5 년간 500억 엔을 투자하여 수몰한 갱도 복구 작업 3 년 후에 연간 2 톤, 장기적으로는 연간 10 톤을 생산할 계획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일 무역 채무 변제의 수단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시작한 지 2 년만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 공업

북한의 조선 공업은 아직 내수용을 위한 중소형 어선 위주의 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데, 특히 서해 지역의 경우에는 동해 지역의 조선소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압록강권 내의 주요 조선소도 용암포와 신의주의 2 곳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이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들의 중주국인 중국

〈표 3〉 압록강권의 주요 광산 현황

지하 자원	광산명	소재	생산량(연간)
무연탄	용문탄광	평북 구장군	· 70만~80만 톤 생산
	태천탄광	평북 태천군	· 150만 톤 생산, 250만 톤 계획, 200 년간 채굴 가능
	용등탄광	평북 구장군	
	용천탄광	평북 용천군	· 70만 톤 생산, 종업원 3,500 명
	진천광산	자강도 진천군	
	화평광산	자강도 화평군	
	철광석	회천광산	자강도 회천군
덕현광산		평북 의주군	· 철, 동광석 50만 톤 생산
금, 은	운산광산	평북 운산군	· 금 0.63 톤, 은 1.4 톤
	대유동광산	평북 동창군	· 금 1 톤, 은 1.4 톤 생산, 매장량 150만 톤
연, 아연	계생광산	자강동 용림군	· 연 6,000 톤, 아연 500 톤 생산
	용운광산	자강동 용림군	· 30만 톤
흑연	동광산	자강동 장강군	· 인상 흑연 2만 톤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1995. 6), 「북한의 산업」, 무공 자료 95-23, pp. 33~44.

1) 1986년 8월에 북한이 운산광산의 재개발을 위해 프랑스의 지질광산조사국과 일본의 통산성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약 1,000 톤(시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외에도 대유동, 구성, 삼성, 삭주 등의 평안북도 금광산 개발도 합의됨에 따라 조총련 상공인 단체와 일본상사, 프랑스의 BRGM社, 캐나다의 WEL社 등이 참가하였다(대한무역진흥공사(1995. 6), 「북한의 산업」, pp. 53~54).

과 구소련간의 무역을 주로 육로 교통을 통해 해왔고 자체 외항선 확보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70년대에 들어서서 비공산권 국가와의 교역 증대로 대형 화물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해는 기존의 항구 이용 및 교역국의 지리적 여건상 동해항에 비해 불리하였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용암포조선소는 북한내 滿載 排水 1,000 톤 이상의 鋼船을 건조할 수 있는 8대 조선소의 하나로, 최대 건조 가능 선박은 2만 톤이고 최대 건조 선박은 5,000 톤이다. 신의주조선소가 목선을 만드는 소형 선박 공장인 반면, 이 조선소는 일반 화물선과 어선을 주로 건조하고 종업원 3,200 명의 대형 조선소이다. 용암포조선소는 동해의 다른 조선소에 비해 뒤늦게 개발되었는데, 70년대 이후에 중국의 원조로 확장되어 어선 건조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시설로는 길이와 폭이 각각 180 m, 20 m의 경사 乾燥臺를 비롯하여 橫線架線路, 相關 가공 공장 및 조립 공장들이 인접해 있다.

한편, 선박용 汽管은 평북 용천군의 북중기계공장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는데, 1958년에는 50 마력급 디젤 엔진 생산과 함께 선박용 기관의 디젤화가 시작되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1만 톤급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기관 공장의 재건 확장 및 대형 가공 설비의 증설을 비롯한 신규 기관, 생산 기지 조성에 주력한 결과 고동력 대형 기관

의 생산이 가능케 되었으며, 1974년에 中速 2,500 마력 기관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화학 공업

압록강권 내의 화학 공장은 신의주공업지구에 밀집되어 있는데, 신의주화학섬유연합소, 봉화화학공장, 청수화학공장 등의 대규모 공장과 정주화학공장을 비롯한 중소 규모의 화학 공장, 염색 공장, 고무 및 제약 공장 등이 있다. 이 지역내 화학 공장들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초 화학 제품과 화학 비료가 주 생산 품목인데, 이는 화학 공업이 경제성보다는 자력갱생의 원칙 하에 다른 공업 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식량 증산 위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식량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영농기에 차질없이 비료를 생산·공급한다는 목표 하에 암모니아, 석회질소, 인 등의 화학 비료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의주화학섬유연합소는 부지 면적 49만 m²의 1급 기업소로, 광복 전에 신의주제지공장으로 건설되었다. 1961년 10월에 펄프 생산 시설을 완공하였고, 1964년에 인조 섬유인 스프 생산 공장이 완공되어 펄프와 종이, 스프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봉화화학공장은 1976년 중국의 원조로 착공된 석유 정제 시설로, 중국산 원유 도입에 유리하도록 요녕성의 단둥과 인접한 평안북도

〈표 4〉 압록강권의 화학 공장 현황

지하 자원	광산명	소재	생산량(연간)
신의주 화학섬유연합소	신의주	스프, 종이, 인견, 펄프 가성소다(2만 톤/年)	· 부지 49만 m ² · 종업원 4,000 명 · 1급 기업소
봉화화학공장	피현군	석유 정제	· 정제 능력 연산 250만 톤 · 원유 저장 탱크 26 개(직경 20~40 m)
청수화학공장	삭주군	카바이드, 석회질소 비료(5만 톤/年) 인 비료(20만 톤/年)	· 부지 15만 m ² · 종업원 2,000 명
정주화학공장	정주군	카바이드, 비날론, 화학섬유	
청년화학연합공장	박천군	합성암모니아(800 톤/日), 요소 1,200 톤/日)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1995. 6), 「북한의 산업」, 무공 자료 95-23, p. 92.

한국산업은행(1995. 11), 「북한의 산업」, pp. 199~211.

피현군 백마리에 건설되었다. 2단계의 공사를 통해 1980년 9월에 연산 250만 톤의 정유 시설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북중간 송유관은 원유 공급용과 나프타 등의 석유 관련 제품 공급용의 2 개로 구성되어 있다. 송유관의 연간 수송 능력은 원유 300만 톤과 석유 제품 100만 톤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공장은 중국산 원유가 유향분이 적어 별도의 탈유향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이점이 있으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휘발유, 나프타 등의 경질유 생산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질유화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소련산 경질유를 사용하는 승리화학공장에 비해 코크스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나프타는 평안남도 안주시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로 공급된다.

이외에도 1938년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54년의 시설 복구와 1974년의 확장 공

사로 부지 면적 15만 m²를 갖춘 청수화학공장 과 공업 원료인 카바이드를 비롯해 비날론 등의 화학 섬유를 생산하는 중소 규모의 정주화학공장이 있다. 또한 자강도 만포시에는 7월4일화학공장이 건설 중에 있는데, 이는 북한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1987~93)에 식량난 해결을 위해 비료와 경공업 부문의 원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경공업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중공업과 경공업의 산업간 불균형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부터 경공업 발전에 정책적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1984년 8월에 '8·3인민소비품운동'이 실시된 후 인민의 식의주 문제 해결 과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의 주요 목표

를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행 발전시키는 데 두는 한편,²⁾ 1994 96년간의 완충기에는 '경공업제일주의'를 선언하였다.

압록강권내 지방 공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평안북도의 대새우 양어 기지와 유리 구슬알 생산 기지 등이 있으며, 자강도에는 화강석 채취장, 산열매 및 산나물 저장 가공 기지, 목제품 생산 기지 등이 있다. 지방 공업의 육성과 함께, 군수 공장 내에 '생활 필수품 직장'을 신설하여 군수품 생산 후 남은 자재를 활용하여 생필품의 부족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운동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군수 공장 내의 경공업 제품 생산 공장들은 전략적으로 군수 공업이 발달된 자강도의 강계시와 만포시에 밀집되어 있다. 강계시에서는 포탄을 생산하는 26호공장(강계뜨락또르공장)에서 밥솥과 수저, 수도 꼭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총 개머리관을 생산하는 93호공장에서는 책상과 의자를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강계시에는 민수용 페인트와 락카 등의 도료를 생산하는 351공장과 내의, 타올, 스카프 등의 의류를 생산하는 9월방직공장 등이 있다.³⁾

〈표 5〉 압록강권의 경공업 공장 현황

공장명		소재	생산 품목	비고
화학 섬유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신의주	· 갈대 스프사(2만 톤) · 생산 능력: 펄프 연간 5만 톤	· 종업원 4,000 명
	구성방직공장	구성시	· 고급 견직물, 모직물 · 생산 능력: 섬유사(13만 톤), 직물(3만 km), 모직물(140 km)	· 1951년 구소련 원조로 건설 · 주요 설비: 정방기 300 대, 면방적 8만 추, 직기 700 대
방직	신의주 모방직공장	신의주	· 생산 능력: 방모사(1.8만 톤, 스프사 70%, 양모 30%), 방모 직물(4,500 km), 염색 가공 53,700 km)	· 1955년 6월 모직물 생산 개시 · 종업원 3,500 명 · 주요 설비: 방모 방적 1만 추
	강계방직공장	강계시	· 생산 능력: 섬유사(1.7만 톤), 직물 6.6만 km)	· 1963년 공사 착수, 1969년 구동독 기계 구입, 1972년 완공 · 주요 설비: 면방적 21만 추
신발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	· 운동화 전문 생산	
제지	신의주제지공장	신의주	· 노트, 모조지 · 생산 능력: 연간 2.5만 톤	
	정주펄프공장	정주군	· 생산 능력: 펄프 연간 2,000 톤	

자료: 한국산업은행(1995. 11), 「북한의 산업」, pp. 317~410.

2) 지방 공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은 郡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 공업은 중소 규모의 기업소들로서 지방 시·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지도 아래 관리·운영되고 있다. 지방 산업 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식료 가공품, 일용품 등은 전체 경공업 생산품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특산물은 수출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내외통신사(1994. 10.27), 「내외통신」, 주간 제924호).

압록강권내 경공업 단지는 신의주시와 강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경공업 정책에 있어서 동부 지역(함흥·청진지구)을 원료 기지화하고 서부·남부 지역(신의주시, 강계시, 평양, 개성 등)을 제품 생산 기지로 구분·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압록강권 내에서는 기계 및 군수품 위주의 강계공업지구보다 화학·제지·방직 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는 신의주공업단지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신의주시에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비롯하여 모방직·신발·제지 공장은 물론, 옥수수 가공 공장까지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 압록강권 내에서 가장 발달된 경공업 지역으로 손꼽힌다.

경제적 투자 환경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시설 가운데 도로와 전력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통신과 항공, 항만 시설은 타 권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다.

항만의 경우에는 신의주와 용암포, 다사도 등 연해 항구만 있을 뿐 대규모의 무역항과 해외 해상 항로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무역항들도 설비의 노후화와 컨테이너 하역 시설의 부족으로 하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이외 지역으로의 해상 운

송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해안선이 동서로 단절되어 있을 뿐 아니라, 70년대 이전까지는 주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철도 수송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운 산업은 외국에서 수입한 일부 중소형 선박으로 연해 항구의 단거리 수송 및 철도와 연결시킴으로써 철도 운수의 보조 작용에 불과하였다.³⁾ 그러나 서해는 강이 길고 물결이 잔잔하여 이 권역 내의 압록강과 독로강, 수풍호를 이용한 내륙 수로 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북한의 철도는 평양을 중심으로 4면으로 뻗어 있으며, 지형이 복잡하고 선로 표준이 낮으며, 열차의 허용 중량도 15~23 톤밖에 되지 못한다. 또한 운행 속도도 느려 북한 최고의 철도인 평의선(평양~신의주)의 경우에 총 연장 길이 225 km에 3 시간 35 분이 소요되어 평균 시속은 약 63 km 수준이다. 평의선은 31 개 역을 통과하는 간선 철도로, 표준궤(광궤)의 전철이다. 이 철도는 북쪽에서는 석탄과 금속, 건축 재료를, 남쪽에서는 목재와 유색 금속 광석을 운반하며, 남북 상호 운반 품목은 기계, 양곡, 일용 공업품 등이다. 압록강 대교와 중국 철도가 연결되어 1954년부터 평양~북경과 평양~모스크바의 국제 철도 간선으로 국제 여객과 화물 수송에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평북선과 만포선의 간선 철도를 비롯하여 약 20여 개의 지선이 있는데, 대부분이 광궤의 전철로 되어 있어 북한 전역 철도의 평균

3) 내외통신사(1993. 8.5), 「내외통신」, 주간 제859호.

4) 북한의 수송 부담률은 철도 86%, 도로 12%, 해운 2%로,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가 되어 있다.

전기화율 89%를 상회하고 있다.

도로는 철도 다음가는 주요한 육상 운송 수단으로, 지형이 비교적 평탄한 서북 해안 지구의 신의주공업지구에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이 권역내 주요 도로는 개성~평양~신의주 구간의 서부 간선 도로를 비롯하여 신의주~온성간의 북부 동서 횡단 도로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로는 대부분이 비포장이며,

철도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거리 수송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큰 화물은 철도와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전력은 압록강과 독로강, 수풍호 등의 풍부한 수자원과 빠른 유속을 이용한 수력발전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발전 설비 용량 70만 kW의 수풍발전소는 북한 최대의 수력 발

〈표 6〉 압록강권의 SOC 현황(1)

항만	· 대규모 무역항은 없으나, 연해 항로와 압록강, 독로강, 수풍호를 이용한 내륙 수로가 발달
	· 국내연해 항로 · 용암포와 다사도에는 평북 의주군 덕현광산의 철광석을 황해북도 송림의 황해제철소로 운송하는 근해 항로가 운영 중임
내륙 수로	· 압록강 수로: 총길이 약 800 km로, 신의주~용암포 구간의 18 km는 200 톤급 선박 항행 가능, 용암포~신과 구간의 약 698 km는 소형 선박 운항 가능, 1954년부터 다사도 신의주~청주, 수풍~초산~만포까지 정기 여객선 항행 · 수풍호: 총면적 365 km ² 로 1954년 수풍~초산~만포까지 정기 항로 개통, 수풍호 연안의 삭주, 창성, 운시, 초산까지의 10여 개 항로 개통
	· 중국 연결선(평양~신의주~단동~북경): 총연장 길이 1,347 km, 통행 시간 22 시간, 주 4 회 정기 운행 · 러시아 연결선(평양~신의주~단동~만주리~바이칼~모스크바): 총연장 길이 8,666 km, 통행 시간 7 일, 주 1 회 운행
국경 연결선	· 평의선(평양시~신의주, 224.8 km, 31 개 역), 만포선(순천시~만포시, 299 km, 38 개 역), 평북선(정주~청주, 120.7 km, 12 개 역)
	· 평안북도: 다사도선(용천~다사도항, 23.1 km, 5 개 역), 백마선(염주~백마~남신의주, 39.6 km, 4 개 역), 박천선(박천~맹중리, 9.3 km), 청년팔원선(팔원~구장), 팔원선(구성~개천, 63.7 km, 8 개 역), 구성선(구성~영변), 덕현선(남신의주~덕현, 48.9 km, 4 개 역), 용암선(구장~용암), 용문선(어룡~용문, 7.1 km), 평안선(만포~용강온천, 34.7 km), 개천선(신의주~개천, 29.5 km, 4 개 역), 양시선(신의주~남시, 28.4 km) · 자강도: 강계~낭림(141.7 km), 만포~운봉, 평양~회천(120 km, 1989년 착공, 완공 단계), 청년선(만포~혜산, 252 km, 42 개 역), 강계발전소선(강계~강계청년발전소, 12.2 km)
주요 간선	· 평안북도: 다사도선(용천~다사도항, 23.1 km, 5 개 역), 백마선(염주~백마~남신의주, 39.6 km, 4 개 역), 박천선(박천~맹중리, 9.3 km), 청년팔원선(팔원~구장), 팔원선(구성~개천, 63.7 km, 8 개 역), 구성선(구성~영변), 덕현선(남신의주~덕현, 48.9 km, 4 개 역), 용암선(구장~용암), 용문선(어룡~용문, 7.1 km), 평안선(만포~용강온천, 34.7 km), 개천선(신의주~개천, 29.5 km, 4 개 역), 양시선(신의주~남시, 28.4 km) · 자강도: 강계~낭림(141.7 km), 만포~운봉, 평양~회천(120 km, 1989년 착공, 완공 단계), 청년선(만포~혜산, 252 km, 42 개 역), 강계발전소선(강계~강계청년발전소, 12.2 km)
	· 평양~자강도 남단의 회천(120 km) 구간이 공사 중에 있음
기타	· 서부 간선 도로(개성~평양~신의주): 총연장 길이 400 km, 중국과 연결 · 북부 동서 횡단 도로(신의주~온성): 총 974 km, 초산, 만포, 중강, 혜산, 무산, 회령 등을 경유 · 간선 도로는 비포장으로 ① 동서축으로는 신의주~고무산간의 861 km(노폭 2.7~6.1 m), ② 서해안축의 개성~신의주간 461 km(노폭 4.9~7.3 m)의 콘크리트 도로와 안주~만포간 291 km(노폭 3.7~4.9 m) 그리고 정주~삭주간 100 km(노폭 4.6~6.1 m, 주요 경유지는 구성, 대관)이 있음
	· 서해안축의 순천~의주간 194 km
고속도로	· 평양~자강도 남단의 회천(120 km) 구간이 공사 중에 있음
	· 서부 간선 도로(개성~평양~신의주): 총연장 길이 400 km, 중국과 연결 · 북부 동서 횡단 도로(신의주~온성): 총 974 km, 초산, 만포, 중강, 혜산, 무산, 회령 등을 경유 · 간선 도로는 비포장으로 ① 동서축으로는 신의주~고무산간의 861 km(노폭 2.7~6.1 m), ② 서해안축의 개성~신의주간 461 km(노폭 4.9~7.3 m)의 콘크리트 도로와 안주~만포간 291 km(노폭 3.7~4.9 m) 그리고 정주~삭주간 100 km(노폭 4.6~6.1 m, 주요 경유지는 구성, 대관)이 있음
도로	· 서부 간선 도로(개성~평양~신의주): 총연장 길이 400 km, 중국과 연결 · 북부 동서 횡단 도로(신의주~온성): 총 974 km, 초산, 만포, 중강, 혜산, 무산, 회령 등을 경유 · 간선 도로는 비포장으로 ① 동서축으로는 신의주~고무산간의 861 km(노폭 2.7~6.1 m), ② 서해안축의 개성~신의주간 461 km(노폭 4.9~7.3 m)의 콘크리트 도로와 안주~만포간 291 km(노폭 3.7~4.9 m) 그리고 정주~삭주간 100 km(노폭 4.6~6.1 m, 주요 경유지는 구성, 대관)이 있음
	· 서해안축의 순천~의주간 194 km
1급 도로	· 서해안축의 순천~의주간 194 km

자료: 남궁 영(1994. 10),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6. 9), 「나진·선봉지대 투자 환경 및 관련 법규」.

전소로 발전 전력은 중국과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이 권역내 수력 발전소의 발전 설비용량은 북한 전체의 수력 발전 용량 433.7만 kW의 약 60%인 251.9만 kW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태천발전소는 1981년 당 중앙위 제6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4대 자연개조사업의⁵⁾ 하나로,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북한 최대의 발전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비록 구소련의 경제 사정 악화와 붕괴로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에 구소련의 지원으로 영변과 태천,

박천 지역에 약 44만 kW급의 원자력 발전소 4기 건설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외화난과 사회주의 경제권들의 원유 지원 감소로 화력 발전 부문에 심각한 에너지를 겪고 있는 북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 발전 가능성

압록강권은 대규모 화물을 선적·하역·수

〈표 7〉 압록강권의 SOC 현황(Ⅱ)

공항	신의주 공항	· 국내선으로, 민·군 겸용의 소형 비행장. 평양~신의주의 부정기 노선 존재
전력	수력 발전소	· 수풍(70만 kW), 운봉(40만 kW), 강계정년(24.6만 kW), 독로강(9만 kW), 태평만(19만 kW), 태천(66만 kW), 위원(39만 kW, 부분 조업중)
	원자력 발전소	· 원자력 발전소: 영변1호(5,000 kW, 1986년부터 운전중), 영변2호(5만 kW, 1995년 가동 예정, 태천 상용발전소(20만 kW, 1996년 완공 예정)
통신	해외 연결망	· 구공산권과는 신의주~북경간의 유선망을 이용, 서방 국가와는 통신 불가
	회선 수	· 시내전화 회선 수는 신의주 51,000 회선, 강계는 59,000 회선(1993년) · 평양과 장거리 회선 수는 신의주 450 회선, 강계는 650 회선(1993년)
	주파수	· 북한의 방송 시설 내역(ITU 등록): ITU에 등록된 100 kW 이상의 주파수는 23 개파, 시설 용량 10,600 kW로 이 가운데 압록강 권역 내에는 자강도의 위원군과 평안북도의 신의주시, 정주군이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위원군: 주파수(720K Hz), ITU 등록 출력(500/250 kW) - 신의주시: 주파수(864K Hz), ITU 등록 출력(250/125 kW), 시설 용량 500 kW - 정주군: 주파수(1,179K Hz), ITU 등록 출력(100 kW)로 당진으로 등록 · 북한의 FM 방송 국제 등록 현황 - 강계시는 1989년 7월 1일 운용 개시하여 주파수는 101.4M Hz - 신의주시는 1989년 7월 1일 운용 개시하여 주파수는 107.0M Hz
용수	· 압록강과 독로강은 물론, 평안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므로 공업 용수는 풍부한 편임	

자료: 남궁 영(1994. 10),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6. 9), 「나진·선봉지대 투자 환경 및 관련 법규」.

5) 4대 자연개조사업이란 30만 정보의 간척지 개간, 20만 정보의 새땅 찾기, 8 km 방조제의 남포 갑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태천발전소는 제1단계의 66만 kW와 제2단계 200만 kW 등의 총규모 266만 kW의 발전 설비를 갖춘 계획이다. 현재 1단계는 완공되었으나, 제2단계는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할 수 있는 항만과 도로, 통신 등 SOC 측면에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 내수 시장과 남한 및 서방국으로의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다소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역내 인구 규모를 보면, 주요 도시인 신의주시와 강계시의 경우에 각각 32만 명과 26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5대 권역 가운데 해주·개성권에 이어 가장 적은 규모로, 평양·남포권의 700만 명이나 함흥·원산권의 300만 명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압록강 권역 자체의 시장 규모가 적다는 점 외에도, 북한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타 권역권과의 연계성 및 산업 기반과 SOC 측면에서도 비교 열위에 있어 이 권역의 북한내 공급 기지로서의 시장 발전 가능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북한의 내수 시장은 물론, 남한 및 서방국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무역항이나 대외 해상 항로가 없다는 점은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기계 및 군수공업 중심의 강계공업지구는 화학 공업이나 경공업, 철도나 도로, 항만 등 산업 기반이나 SOC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남북간 연계성이나 관련 산업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배후 도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매우 열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 환경과 대외 개방 가능성

압록강 권역은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험악한 산악 지대로 되어 있어, 사상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측면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의주시는 정치적 오염 우려가 적다는 이점과 함께,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요녕성과 길림성에 인접해 있어 동북 3성으로 진출하기 위한 물류 및 변경 무역 기지, 또는 수출 주도형 가공 무역 단지로도 매우 유용한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신의주시는 보세 가공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남포·원산과 함께 추가적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분히 남북관계의 개선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식량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외자 유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작금의 경제 여건상, 대외 개방 지역으로 선정되면 제도적 측면의 투자 애로요인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외화 획득이 용이한 수출 지향적 산업 부문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개방이 확대되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치적 개입 축소와 함께, 나진·선봉의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결산 이윤에 대한 기업 세금 감면 혜택 등 각종 정치·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할 소지가 크다.

투자 환경 종합 평가 및 진출 방안

투자 환경 종합 평가

압록강권은 전력 공급의 용이성이나 중국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산업 기반이나 SOC, 개방 정도와 시장 발전 가능성, 생산 요소 이용과 각종 세제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특구와의 차별성, 남한과의 연계성 등 전반적으로는 투자 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나진·선봉권이나 평양·남포권, 원산·함흥권 등에 비해 투자지로서 부적합하다.⁶⁾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변경 무역지와 수출 가공 무역 단지, 그리고 물류 기지 확보 차원에서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나아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추가적인 우선 개방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북한의 산업은 설비 노후화 및 기술 수준의 낙후, 심각한 에너지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타 권역 내의 산업 시설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 권역 내의 양호한 수력 발전 시설은 정상적인 공장 가동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진출 방안

압록강권 투자에 대한 기본 방침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북 진출의 교두보 및 동북아 물류 전진 기지의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투자 지역에 있어서는 신의주사가 낮은 구릉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압록강 권역내 대표적인 기계 공업 및 경공업 도시인 만כן, 기존의 산업 기반과 수송로, 중국 단둥과의 인접성 측면에서 유망 지역으로 손꼽힌다.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신의주항이 대규모의 화물 선적이 어려워 서해 지역 대부분의 화물이 남포항이나 송림항을 거쳐 운송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부품 조립 및 중국산 원료를 이용한 수출 가공 무역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풍부한 지하 자원 및 산림 자원을 개발하는 자원 개발 사업이나 중국의 원유를 활용하는 화학 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아직 단독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이 선호하는 합영 투자 방식을 채택하되, 투자 규모가 크거나 자본 회수 기간이 긴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화교 자본과의 합작 투자나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단독 투자 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統**

6) 북한내 투자 희망 지역 가운데 신의주·해주(10.9%)는 평양(22.6%), 나진·선봉지대(19.5%), 남포(17.9%), 개성(11.7%)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함흥·신포(5.5%)보다는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6. 7.16), 「중소기업 남북 경제 교류 희망 실태 조사 결과」).

<만화북한기행>

경원도작양

経協

労作

> 허어꿈 <

